

# 주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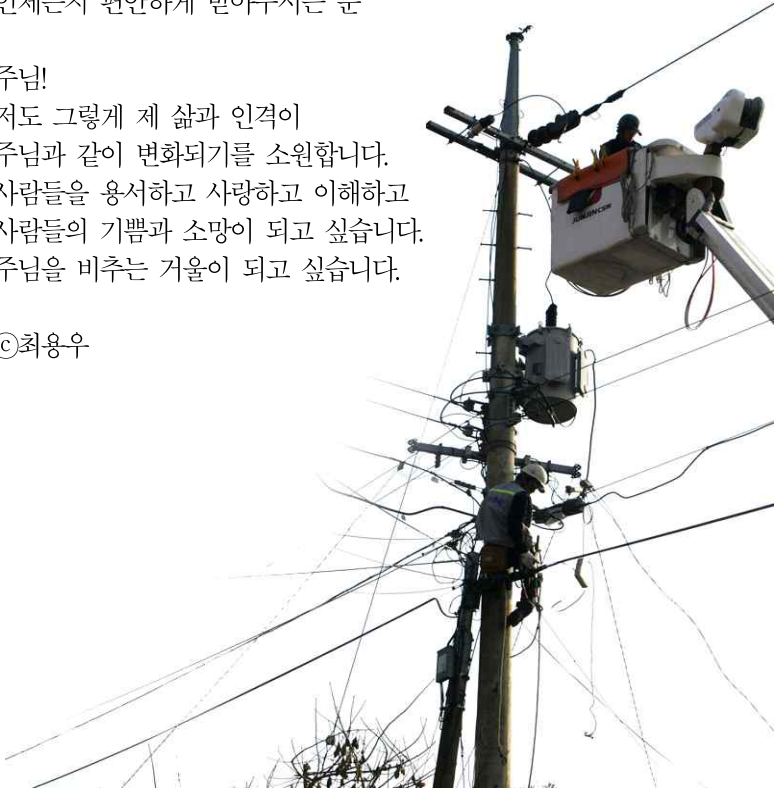
주님!

주님은 너무너무 다정하시고  
따뜻하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신 분  
부드럽고 평화롭고 이롭다우신 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든지 편안하게 받아주시는 분

주님!

저도 그렇게 제 삶과 인격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람들의 기쁨과 소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싶습니다.

©최용우



드림꽃편지 467

2007.12.7 대설

<http://cyw.pe.kr> 햇볕같은이야기

## 유일성의 논리



예수님은 ‘나는 유일의 길이요, 유일의 진리요, 유일의 생명이라고 주장하신다.’(요 14:6) “오직 한길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 이것이 기독교 전도의 대전제이기도 하다. 이것이 기독교 전도의 좁은 문이요 십자가인 것이다.

관용성이 문제가 되고 다른 종교의 반발을 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2+2=4 란 진리는 하나뿐이고 그 밖의 모든 수는 사실이 아니다. 최후의 귀한 것도 하나 뿐이다. “나”는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교환도 혼합도 안 된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 분 뿐이어야 하며 남녀의 사랑의 상징인 처녀성과 동정도 하나뿐이다.

나의 유일성 보다 아버지의 유일성보다 더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속의 길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나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김준곤 목사<예수칼럼/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14:6)

## 기도의 영이 말라간다

깊은 기도가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달콤한 즐거움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의 증언이기도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다. 그리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평소 오랜 시간을 기도에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잠시 드리는 취침 기도와 의례적으로 드리는 일상적인 식사 기도를 제외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실망적일 정도로 소수임을 알아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경 앞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고 있으며,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시간보다도 적은 시간을 겨우 기도하고 있다. ©김남준 목사<한국교회 영적 기상도를 본다/두란노>

## 비상( 常)한 기도

갈멜산은 높이가 1800미터나 된다. 그 서편에 지중해 푸른 바다가 있다.

엘리아는 ‘땅에 꿰어 엎으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왕상18:42) 기도하였다. 이 기도의 자세는 심각한 마음의 결의를 표시하는 자세라고 본다.

겻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하였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눅22:41)

지금 우리는 이러한 비상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얕은 대야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되지 말자. 숨이 막히고 답답할 뿐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자.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우물을 파겠으면 한 우물만 파자. 그리고 물이 나오도록 파자.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망할 뿐이다. 하나님을 향해 애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라야 세상을 향해서도 호소력이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다. ©엄두섭 목사<영성의 새벽/은성>

## 두 잎 클로버

네 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그러나 네 잎 클로버는 돌연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 잎 클로버 가운데 어쩌다 하나씩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네 잎 클로버는 인간세계라면 틀림없이 왕따 신세이겠지요. 치명적이고 가장 큰 약점을 우리는 행운으로 해석합니다.

세 잎 클로버는 행복, 네 잎 클로버는 행운, 또 어쩌다가 한 잎이 떨어져 나간 두 잎 클로버도 있지요. 두 잎 클로버를 ‘용기’라고 이름 붙여주면 어떨까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잎을 하나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용기를 내서 잘 살아라고 ‘용기’라 이름 붙여주고 싶습니다. ©최용우<햇볕같은이야기1/들꽃편지>

## 떠오르기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파란 하늘을 보면 두둥실 떠오르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떠오르는 방법은 있지요. 바로 열기구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기구를 눈 여겨 잘 보면 사람이 타는 바구니 옆에 모래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 모래주머니는 열기구가 멀리 날아가버리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지요. 열기구에 타고 가스를 주입한 다음 모래주머니를 하나하나 떼어내야 두둥실 하늘로 떠오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두둥실 떠올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올라 가려면 먼저 기도의 가스를 넉넉하게 풍선에 주입하면서 동시에 바구니 주변에 붙어있는 모래주머니들을 하나하나 떼어내야 합니다.

그 모래주머니는 열개인데 ‘죄, 이기심, 탐욕, 교만, 의심, 시기심, 거짓, 자랑, 우상 숭배, 나태’의 주머니입니다. ©최용우<햇볕같은이야기3/들꽃편지>

## 햇볕같은 이야기



### 아킬레스건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가 건들면 몹시 아프고 화가 나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절대로 건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지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남자답지 못하다” “무능하다” “돈을 못 벌어서 온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다” 같은 말을 특히 자녀들 앞에서 들을 때, 마음속에 숨어있던 열등감이 폭발하면서 화를 내거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못생겼다” “살림을 잘 못한다” “무식하다” “친정에서 뭘 배웠다” 같은 말을 들었을 때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는 아픔이 됩니다.

시력이 매우 안 좋은 어떤 처녀가 있었습니다. 잘 생기고 멋진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그 청년의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더듬거리며 찾는 아가씨를 보고, 나는 눈이 좋으니 평생 그의 눈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약점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장점으로 배우자의 약점을 감싸주고, 또 배우자의 장점으로 나의 약한 부분이 보호를 받게 될 때 그 가정은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2242)

### 예쁜 손 예쁜 발

텔레비전에 어떤 장애인 시설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예쁜 손 어디 있지요? 예쁜 손을 들어 보세요”

“예쁜 발 어디 있나? 아이고 발이 참 예쁘네”

아직 자의식(自意識)이 제대로 생기지 않은 지체장애 어린이들의 신발을 신겨주면서, 옷을 입히면서 꼭 예쁜 손 ~ 예쁜 발 ~ 이라고 하더군요.

한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어린이가 자라서 자신의 손이나 발이 남들의 손이나 발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겠지만, 어릴 때 늘 들었던 ‘예쁜 손, 예쁜 발’이라는 말이 귀에 남아 있는 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과 다른 나의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열등감을 갖기 보다 오히려 그것을 ‘예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훨씬 부드럽고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나의 ‘예쁜 손, 예쁜 발’은 어디입니까? (2245)

## 건강한 인간관계

통계에 의하면 실업자의 60%가 대인관계의 실패로 퇴출을 당한 경우라고 합니다. 기술이나 실력, 지식,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원만한 지 못한 관계 때문에 퇴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퇴출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찼었다고 믿지 않고 억울하게 찼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아부를 하지 않아서라거나 학력이 떨어져서 밀렸거나 줄을 잘 못 서서 찼었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자기합리화이고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절하고 융통성 있고 정직하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호감이 갑니다. 반면에 진실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친절하고 매너가 없고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삶과,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고 중용을 지키면서 동료들이나 상사들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어려울 때 퇴출시키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겨두고 싶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2247)

##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 약 200절 이상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높다, 귀하다, 훌륭하다, 고귀(高貴)하다, 귀중(貴重)하다, 성(聖)스럽다, 신성(神聖)하다, 존엄(尊嚴)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은 ‘거룩’이란 한마디로 ‘격리, 구별’이라고 설명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격리된, 구별된 생활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세상과 똑같습니다. 너무도 세속적이어서 기독교인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기도시간 외에 잊어버린 듯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거룩한, 구별된,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밤’ 또한 구별된, 격리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날도 아기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눈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지 말고 ‘고요한’ 곳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우두커니 있는 것은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별’이 아닙니다. 거기

에서 도망치는 것이 진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2261)

## 인생은 행복합니다

세익스피어는 인생에 대해 그의 희곡 ‘멋대로 하세요’에 이렇게 썼습니다.

“유아기의 인생은 엄마 품에서 우는 시기요

어린 시절의 인생은 공부에 시달리는 시기요

청년 시절의 인생은 여인에 빠져 현실 감각이 없는 시기요

장년 시절의 인생은 명예욕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시기요

노년 시절의 인생은 자신감도 사라지고 마음도 약해지며 잘 잊어버리고 이가 빠지고 눈까지 멀어 마치 갓난아기와 같은 시기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기의 인생은 부모의 품안에서 행복한 시기요

어린 시절의 인생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의 시기요

청년 시절의 인생은 이성에 대한 신비로움에 황홀한 시기요

장년 시절의 인생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기요

노년 시절의 인생은 휴식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2264)

## 염려 체상전

염려는 ‘목을 짊 조른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약국에 가서 ‘신경안정제’를 찾게 합니다.

염려는 ‘마약과 술’을 부르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합니다.(잠17:22)

염려는 ‘두려움’과 친구입니다.

염려는 사람을 파괴하는 ‘괴물’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기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로 죽습니다.

염려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적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큰일을 못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신앙입니다.

자! 지금부터 염려병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가지만 해도 족하니라.“(누기복음10:41)

딱! 답이 나왔지요?

많은 일을 하지말고 딱 한가지만 집중하여 하십시오.

많은 생각을 하지말고 몇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염려란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단순 무식하게 살면 '염려'도 없습니다. (2263)

## 다섯가지 맛

음식의 맛은 크게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으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맛은 우리 몸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1. 단맛-비위를 도와 살을 찌게 한다.
2. 신맛-간을 도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 힘을 내게 한다.
3. 쓴맛-심장을 도와 피를 맑게 하고 몸에 생기가 돌게 한다.
4. 짠맛-신장과 신경을 도와 뼈를 단단하게 하여 성장을 돕는다.
5. 매운맛-폐를 도와 지구력을 높여 준다.

한끼 식사를 하더라도 이 다섯가지 맛을 내는 음식을 모두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관찰해보면 단맛을 대단히 과다 섭취하는데, 이는 비만, 당뇨 골다공에 대한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환과 종양의 발생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맛과 짠맛을 줄이고 신맛과 쓴맛을 늘여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출23:25) (2262)

## 유명해지고 싶거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 천하에 이름 석자 널리 훽훽 날려 보고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유명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세상입니다.

남아 대장부라면 무력으로 세상을 뒤집든지, 글을 잘 써서 천하에 이름을 날리든지,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하든지, 목소리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든지, 백만장자가 되어 못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뭔가 한가지 일에 전념하여 그 분야에서 탁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발 종교를 이용하여 유명해지려고는 하지는 마십시오. 종교는 명예를 얻고 유명세를 얻는 도구나 방편이 아닙니다. 종교는 절대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구도(求道)의 도구이지, 그것을 이용하여 먹고사는 밥벌이의 도구가 아닙니다.

종교의 타락은 다른 그 어떤 타락보다 더욱 무섭고 심각합니다. 나라를 빼앗기 위

해 벌인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종교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같은 종교 안에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로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종교와 종교간의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종교 스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스타가 되어 정신없이 바쁘면 도는 언제 닦고 수련은 언제 한데요? (2259)

## 중산층 환상

여론조사를 해보니 세계에서 중산층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약 70-80%가 자신은 중산층이라 합니다. 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있으니 자신은 중산층이라 합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비율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한국인 특유의 ‘적당주의 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류층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하는데 자신을 상류층이라 하면 그 고까운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류층 사람들이 자신은 ‘중산층’이라고 적당히 대답하며 중산층 가운데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 문화는 아무리 삶이 곤고해도 자신을 빈곤층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중산층에서 소외당하기 싫어하는 심정이 생겨나 당장 쌀독이 비어 있는 사람도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대답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우리나라는 상류층 10% 중산층 30% 겨우 굶지 않는 빈곤층 40% 극빈층 10% 정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상류층 10%의 재산은 빈곤층과 극빈층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불균형 상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산층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55)

## 그들

지난 여름 너무 더워서 집 앞에 찻던 포장을 걷어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좋았는데 겨울엔 그들보다는 햇볕이 필요하기에 포장을 걷어낸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 날아가기도 했지만 한 철 잘 사용하였습니다.

“포장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늘은 제가 아니라 햇볕이 만들어 주었는데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햇볕이 없으면 그늘도 없고 햇볕이 강하면 그늘도 선명하고 햇볕이 흐리면 그늘도 흐리고 이제 햇볕이 직접 필요하니 제가 사라지잖아요.”

듣고 보니 포장의 말이 맞네요. 우리 집 포장은 말도 해요.^^ (2257)



## 잘 아는 이야기 한 토막!

한 늙은 농부의 밭 한 가운데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농부는 오랫동안 그 바위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쟁기 날이 바위에 걸려 두 대를 부서뜨렸고, 새로 산 경운기까지 망가뜨리자 바위를 파내어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바가지로 바위를 한번 들추자 의외로 바위는 너무 쉽게 뽑혔습니다. 바위는 생각했던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별것도 아닌 바위 때문에 그동안 입은 손해를 생각하며 허탈해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는 의외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양이 아침 안개를 걷어 가듯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오늘은 파내 버리세요.

### 응답 받는 기도의 비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이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대전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어쨌든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울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멈추어 버리거나 천안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서울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서울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대전 옆으로 옮겨져 있었더라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응답에 도달 할 때까지 가야 합니다. 끈질기게 오랫동안 인내하며 쉬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답 받는 기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 끈질긴 기도

기도는 나의 간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때를 쓰고 굴러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날카로운 칼을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할 때 왜 칼을 가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칼 대신 다른 것을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기도제목은 끈질기게 계속 붙잡고 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끈질김으로 자신의 뜻을 반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다른 대안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신들도 응답 받는 기도

누가복음 8:26-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을 여행하실 때 마을 밖 묘지 주변을 방황하고 있는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옷도 입지 않은 미치광이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외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침 그 곳 산에는 많은 돼지 무리가 풀을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은 돼지들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귀신들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크신 능력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귀신들의 기도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도, 능력도 모르는 사람은 귀신만도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분이신지를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피상적인 기도만 하기에 귀신도 응답 받는 기도를 나는 응답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주문을 하는사람, 주문을 받는사람

식당에서 음식을 골라 주문을 하는 사람은 손님이고, 손님의 주문을 받아 음식을 만들어 오는 사람은 종업원입니다. 흔히 기도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손님의 기도를 주문 받아 들어주는 식당 종업원쯤으로 여김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문에 우리가 요리를 해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하여 구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따를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문할 기도 제목만 한 보따리 가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문하실 것인지 주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최용우<행복한기도시간>

## 당신의 주의를 집중하라.

노새 한 마리를 팔려고 내놓은 어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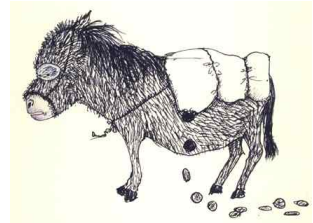
그는 노새가 어떠한 명령에도 잘 복종한다고 호언하였다.

노새를 사려고 하던 한 사람이 농부와 노새를 시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는 노새를 향해 앉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노새는 계속 서 있기만 했다. 그러자 농부는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막대기를 집어들더니 노새에게로 다가가 머리를 치며 앉으라고 명령하였더니 노새가 즉시 앉는 것이었다.

농부는 말했다. “먼저, 노새의 주의를 끌어야지요.”

우리는 자신의 목표와 직장, 그리고 가정과 그 밖의 다른 개인적인 관심사들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땅히 부여해야 할 우선 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에만 지나치게 얽매어 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어느 때에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셔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 ©찰스 스탠리 <역경을 이기는 법>



### 더 굵고 더 길게

어떤 수도사가 하얀 종이의 한 가운데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선에 손을 대지 말고 이 선을 가늘고 짧게 만들어 보아라” 하고 말했다.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한참 뒤에 한 제자가 스승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앞으로 나왔다. 그는 붓을 들고서 스승이 그은 선 옆으로 더 굵고 더 긴 선을 여러 개 그었다. 그러다 보니 스승이 그은 선은 상대적으로 가늘고도 짧아 보이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칠 때가 많다. 그럴 때 그 문제에 집착하다보면 근심과 염려가 쌓이게 되고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자리잡을 틈이 없어지고 만다. 그러한 경우에 그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그럴수록 기도의 줄을 더욱더 굵고도 길게 늘려라. 감사의 줄을 힘껏 그어라. 믿음의 줄, 헌신의 줄을 더욱더 힘차게 그려라.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는 어느덧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부둥켜안고 혼자 아무리 씨름을 해보았  
자 소용이 없다.

내 마음을 그 문제에서 떠나게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줄을 계  
속 그어나갈 때,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박상훈<하나님, 왜 이러세요?>

##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미국의 목사인 칼 터틀은 결혼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당  
하는 몹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크리스천이 된 후, 어느 날 하나  
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방해를 받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교외로 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5분이 지났  
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 실망한 채로 집으  
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두 달 된 아기인 재커리를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려니 이 어린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가슴에서부터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트리  
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재커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보호해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  
가 되고, 너를 보살필거다. 네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나나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갑자기 칼은 자신이 하나님의 팔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주고,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니키 검블 <인생의 의문점들?>

## 감동적인 성탄절

성탄절을 앞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거리에는 추위에 몸을 움크  
린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캐럴이 울리는 화려한 상점 앞에 한 어린아이가 남루한 옷에 다 떨어진 신을 신  
고 상점 안을 황홀한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상점 안으로 들어가려던 어느 여인이 아이를 보고 손을 잡고 상점 안으

로 들어가 새 신발과 따뜻한 옷을 시주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렴.” 여인의 말에 아이는 여인을 바라보며 가만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나님이에요?” 아이의 말에 여인은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네.”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저는 벌써 알았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기다리는, 몸과 마음이 험벗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들로 인해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숙<영화초등학교장>

## 최후의 승자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인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이들은 잘 가꾸어진 정원의 연못에 있는 물고기 잡이에 내기를 걸었다. 제일 먼저 히틀러는 권총을 뽑아 발사했다. 그러나 탄환은 물고기를 맞추지 못했다. 히틀러의 실수를 본 무솔리니는 연못에 직접 들어가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속에서는 물고기의 동작이 사람보다 민첩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처칠의 차례가 왔다. 처칠은 연못의 물을 퍼냈다. 물고기는 당연히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한 처칠에게 잡혔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어떤가? 강자였던 히틀러, 무솔리니에 대해선 사후에도 단죄의 소리가 높지만 처칠은 국가 유공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런던 피커딜리 공원에 동상이 서 있다.

자연계도 이와 마찬가지로다. 금잔디와 클로버, 어떤 것이 강할까? 잔디가 강한 것 같지만 잔디밭에 그 여린 클로버가 뿌리를 내리면 잔디밭은 변해버린다. 부드러운 가족과 예리한 면도칼 어떤 것이 강할까? 면도칼이 강한 것 같지만 면도칼을 세우려면 보들보들한 가족에 문질러야 한다. 부드러운 가족이 강한 면도날을 마모시킨다. 땅을 정복할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다.

©기독교문사 <교회사에서 골라낸 1882가지 신앙이야기>

### [깔깔깔]사랑의 세대론

- 10대 사랑은~ 공상.
- 20대 사랑은~ 열정.
- 30대 사랑은~ 체험.
- 40대 사랑은~ 조화.
- 50대 사랑은~ 동행.
- 60대 사랑은~ 추억.
- 70대 사랑은~ 재생.
- 80대 사랑은~ 주책.

## 대강절( 降節)

대강절(Advent)은 ‘오다. 도착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며, 한때 이 말은 성탄절에만 국한되어 사용되기도 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며 자신을 기다듬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성탄절 전 네 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의 대림절(待臨節), 강림절(降臨節)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이란 기다릴 대(待)와 내릴 강(降)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네 번의 대강절주일을 지내고야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찾아오면 교회는 매주 한 개씩의 초를 덧붙여가며 불을 밝히면서 예수탄생축제를 선포하고 성탄절 전야에는 다섯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대강절은 초대 교회시대에 이미 기념되기 시작했으나 성탄절기에 대한 이견으로 대강절기 역시 통일되지 않았다가 성탄절이 동, 서로마 교회의 통일된 절기로 승인된 4세기 후반 이후에야 대강절 역시 성탄절 전 4주간의 고정된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강절이 12세기 들어오면서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서, 즉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로 보는 관점이 보편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현재는 믿는 자의 마음에 직접 찾아오시며, 마지막 심판날에는 재림주로서 오실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대강절에 회개와 새 결단을 촉구하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대강절에서 성탄절까지 세상은 온통 빛으로 가득 찹니다. 히브리인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부정한 것을 제단에 세운 것을 몰아내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함으로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다시 찾은 것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행했던 8일간의 빛의 축제, 즉 수전절(修殿節)행사가 그 유래입니다.

오늘날에는 촛불 대신에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오색 깜빡이 전등 추리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집안에, 상점에, 백화점에 설치를 하며 거리거리를 밝히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최용우

## 성서주일( 書主日)

성서주일은 대강절 둘째 주일에 지키는 절기로 그 시기는 12월 첫째 주나 둘째주가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성서주일이 있는 주를 성서주간(Bible Week)으로 지키고 있으며, 미국의 성서공회에서는 1943년 이래로 성서주간을 매년 추수감사절로부터 크리스마스까지로 확장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이 보편적인 교회 절기가 된 것은, 1904년 3월 6일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영국의 성서공회가 성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전 세계의 신도들을 초청하는 사업을 전개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미국의 성서공회 역시 창립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1915년 12월 5일을 세계 성서주일로 지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1916년 미국 성서공회의 창립 100주년 행사로 세계의 여러 종류의 성경을 전시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성서가 출판되고 각국어로 번역되어 배포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각 교회에서는 성서주일에 성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르게 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성경을 접하기 어려운 벽지나 기독교 선교가 활발하지 않은 나라에 진리의 말씀인 성서 배포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여 읽고 연구할 목적으로 1954년부터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서주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이 때 드리는 헌금은 성서 보급 사업에 쓰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는 그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인간의 의지와 지식이 개입된 그 무엇이 아니라, 그 기원과 본질상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계시로서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인 성경으로만 삼고 있음을 가리킨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서주일을 맞을 때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 셀러나 아니면 한 위대한 고전으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위한 절대 유일의 계시로서의 성경관을 새삼 확립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의 지식의 정도를 가늠해보고 각자 형편과 단계에 맞는 새로운 성경 연구를 시작하는 기회로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용우

##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이야기 하나. 한국 전래 민담 한 토막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고려장이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 젊은 사람도 죽을 판이니, 일도 못하고, 양식만 축 내는 늙은 부모를 산 속에 갖다 버려서 굶어 죽거나, 산짐승 밥이 되도록 하고, 산 사람이나 살아보자는 악한 풍속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늙은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 속으로 갔습니다. 지계에서 그 어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돌아섰을 때, 날이 어둑어둑 해졌습니다. 아들은 산길이 어두워 돌아 갈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일었습니다. 그 때 늙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오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길 표를 해 놓았으니, 그 걸 보고 내려가거라!”.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야기 둘. 일본 전래 민담입니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이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산 사람의 생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생간을 꺼내 들고, 병들어 누워 있는 사랑하는 여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귓가에 자꾸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니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넘어질라, 천천히 가거라” 어머니 마음입니다.

이야기 셋. 그 자식은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주색잡기, 투전에 폭 찌든 놈이었습니다. 그 날도 새벽녘이 다 되어, 뒤 담을 넘었습니다. 사방이 괴괴합니다. 다만 마당 건너편 사랑채 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자식은 아버지께 들킬까봐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서, 자기 방 미닫이를 살그머니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집안 사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 놈은 히죽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때, 건너 편 사랑채 아버지 방에 불빛이 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놈은 그 재야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재 놈이 몸 성히 돌아 올 때까지 매일 밤, 말 없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아버지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목사<말씀의샘물234호에서>





## 성탄절(聖誕節)의 건설

12월 25일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축제일입니다. 24일 밤, 즉 그 전날 밤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데, 초대 기독교에서는 하루를 전날의 일몰로부터 다음 날 일몰까지로 쳤기 때문에 이 전야인 이브가 중요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탄절은 3세기부터 지켜진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에는 그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서 1월 6일, 3월 21일(춘분), 12월 25일 등등 제각각이었다가 354년경 로마서방교회가 12월 25일을 고정적인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고 379년부터 그리스교회(동방교회)도 12월 25일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농경사회인 로마에서는 '사투르날리아'라는 농경신의 제사일(祭日)이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성대하게 베풀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초기 기독교가 이교도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이러한 동지(冬至)의 축일, 다시 말하면 태양숭배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예수 탄생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이교도들의 우상숭배 전통은 점점 사라지고, 그것들과 결합한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 절기인 성탄절이 점점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닌, 비(非)기독교적인 많은 풍습들이 함께 행해지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 성탄 트리, 포인세티아 장식, 성탄 카드, 루돌프 사슴, 케럴, 선물교환 같은 풍습조차도 사실은 성탄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교도들의 풍습에 해당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각국의 이방 풍습이 합쳐진 전설이나 풍습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는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종파와 교회에서 12월 25일을 별 거부감 없이 성탄절로 받아들이며 크리스마스의 예식을 행하고 있으나, 드물게 스코틀랜드의 지극히 청교도적인 장로교회파인 프레즈비터리언 같은 곳에서는 변질된(?) 성탄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12월 25일에 어떤 예식도 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더욱 깊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용우

## 사랑으로 행하는 것

1. 비록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동기일지라도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 버리라 장애인이 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마18:8). 그러나 궁지에 빠져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 해 주는 것은 선한 행동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 선행은 중단되지 않고 보다 나은 선행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겉치레적인 선행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13:3)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눅7:47)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어떤 것이든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며 모두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했는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얼마나 큰사랑으로 선행을 행했는가를 헤아려 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욱 큰사랑을 행하는 자가 더욱 큰 선행을 행하는 셈이 된다.

2. 진실되고 완전한 사랑을 지닌 자는 조금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빌2:21) “무례히 행하지 아니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고전13:5), 오로지 모든 선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소망한다. 이런 자는 결코 시기하지 아니한다. 이는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일에 기뻐서 날뛰지 아니하며, 만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해 드리는 데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시17:15)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다 셀라” (시24:6). 이런 자가 선행을 하면 절대로 사람의 자랑으로 돌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린다. 이 세상의 만사는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결국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결실을 이룩하여 영원히 안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 우리 인간이 한 줄기의 참된 사랑만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련만..

©토마스아퀴나스<그리스도를 본받아>

## 하나님과 예수님

1.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요3:16, 6:57, 8:16-18)
2.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印)치셨습니다.(요6:27)
3.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가르치셨습니다.(요8:28)
4.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눅4:18, 사61:1, 행10:38)
5.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증거 하셨습니다.(요8:18)
6.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요10:17)
7.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사42:1, 마3:17, 17:5)
8.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마26:53, 요11:41)
9.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요3:16, 18:11, 롬8:32, 요4:9-10)
10.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엡1:20)
11.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높이셨습니다.(엡1:20, 2:9-11)
12.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요12:28, 17:1)
13.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엡1:22)
14.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요5:22, 27)

## 예수님과 성령님

1.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눅1:35)
2.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마3:16, 히1:9)
3.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셨습니다.(눅4:18)
4.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요6:27)
5.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마4:1)
6.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마12:28, 행10:38)
7.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요3:34, 눅4:1)
8.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슬퍼하셨습니다.(요11:33)
9.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눅10:21)
10.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히9:14)
11.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부활하셨습니다.(롬1:4 벰전3:18)
12.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행1:2)

## 예수님과 천사들

1. 천사들은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골1:15)
2.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히1:6)
3.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마1:20-21, 눅1:31)
4.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눅2:9-13)
5. 천사들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마4:11)
6. 천사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눅22:43)
7.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러버렸습니다.(마28:2)
8.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마28:6)
9. 천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행1:10-11)
10. 천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시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살후1:7-8)

##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 천사 가브리엘이 아기예수의 잉태를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눅1:28-35)
2.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잉태를 기뻐하였습니다.(눅1:46)
3.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습니다.(마2:11)
4. 천사가 아기예수를 만났습니다.(눅2:13)
5. 허다한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눅2:14)
6.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눅2:16)
7. 시므온이 아기예수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눅2:10-14)
8. 안나도 예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였습니다.(요1:15)

## 예수님과 세례요한

1. 세례 요한은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눅3:16)
2.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눅3:16)
3. 세례 요한은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이라고 했습니다.(눅3:16)
4. 세례 요한은 예수는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실 분이이라고 했습니다.(눅3:17)
5. 세례 요한은 예수는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이라고 했습니다.(요1:17)
6. 세례 요한은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11:18)
7. 세례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했습니다.(요1:29)
8. 세례 요한은 예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라고 했습니다.(요1:30)

- 9. 세레 요한은 예수는 나보다 먼저 계신 이 라고 했습니다.(요1:30)
- 10. 세레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요1:34)
- 11. 세레 요한은 예수는 신부를 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요3:29)
- 12. 세레 요한은 예수는 흥하여야 할 분 이라고 했습니다.(요3:30)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별같은이야기**

제 3094호

<이전 1다음>

홈 | 후원 | 지난호보기 | 사역소개

2007년 12월 1일에 띄우는 삼천아래내번째 쪽지!

**□ 아 - 해보세요**

작은말 받은이가 갑자기 걸려 울죽거리기에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손을잡은 것을 집어들이니 "아 ~~~~~ 해보세요" 하고 말합니다.

입을 아 ~ 벌린다. 입안을 저체히 살펴보고 호스 같은 것을 넣어 입안 내시경을 찍습니다. 목 부위에 물기 같은 것이 있어 목검이라는 진단과 함께 처방전을 써 줍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입 안과, 심장 췌는 소리, 얼굴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아픈 곳을 찾아냅니다.

목재의 의사와들과 마찬가지로 열종의 의사인 목사들도 성도들을 진단할 때 "아 ~~~~~ 해보세요" (라고는 안 하지만), 그 사람과 몇 마디 말을 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거의 압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가득 차 있다가 입으로 넘쳐흐를 뿐입니다. (마12:34) 그러므로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교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입에서 '천국의 말'이 나오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입에서 '지옥의 말'이 나옵니다. 자, 어디 아 ~~~~~하고 한번 말을 해 보세요. 진찰을 해 보세요. ☺최홍우 한마디 하기

**공\*사랑**

공주는 사랑의 백두산비정특집관련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신문도기사 보기

**후\*도\*지\*** 초등학교 6학년 그만하고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키워라  
12살 중년의 무한 도전이야기

**GODpeople Mall** 책을 사실때는 꼭  
가뭇같은이야기 갖춰서 사세요

- 성탄절선물, 성탄자료 모음
- 성탄절 칸타타 악보 모음
- 2008년 다이나믹 모음-단체구입 할인
- 2008년 상반기홍과 저를 준비하세요
- 월간 성령의성-장기구독(최홍우 원고 송)

간짜들들 | 인리파크 | GSession | G마작 | 독신

**■ 홈페이지 메뉴 바도가기 ■**

|      |      |       |
|------|------|-------|
| 햇별모음 | 예화   | Jesus |
| 독수공방 | 심계명  | 찬양집   |
| 김동태문 | 유미   | 자료실   |
| 최연철  | 유지혜화 | 기도실   |
| 원고   | 동화   | 성경쓰기  |
| 독서일기 | 설교   | 물종교지  |
| 저서판매 | 임종기려 | 햇별마을  |
| 仁順齋  | 홍영생  | 추천사이트 |
| 재정보고 | 바알해문 | 꽃이들   |
| 자유게시 | 사진감상 | 성화모음  |

**분야별 기독교 추천 사이트**

|               |           |           |
|---------------|-----------|-----------|
| ● 검색          | ● 방송      | ● 포탈      |
| 크로스원 CBS      | 홍성방송      | 간짜들       |
| 갓피아           | 극동방송      | 홍산나넷      |
| 온라인닷컴 C3TV    | CTS-TV    | 성교학회      |
| 지앤리브 CTS-TV   | KCM       | KCM       |
| KOMIN CGN-TV  | HolyBible | christ100 |
| 온라인닷컴         | 온라인닷컴     | 요한넷       |
| 웹사랑 21TV gctv | 예수넷       | 사할TV      |
| 다이나믹 JesusTV  | 국민일보      | 국민일보      |
| 디딤기독 JesusTV  | 기독교TV     | 기독교TV     |

● 성경 ● 잡지 ● 신문

|     |       |        |
|-----|-------|--------|
| 강준민 | 기독교사상 | 크리슈데이  |
| 김남준 | 목회와신학 | 뉴스앤조이  |
| 김영준 | 빛과소금  | 기독교신문  |
| 전병욱 | 성령의성  | 기독교포스트 |
| 김영준 | 복음과성경 | 당당뉴스   |
| 여주명 | 물종교지  | 물종교지   |

**■ 햇별같은이야기-숨어있는 자료 추천!**

- 어린이주보에 넣을 42만화 82편
- 10년동안그린 문예이네 기록달력
- 열심회 책문 송년 200장
- 기독교신문 연례 홈페이지 64쪽 링크
- 포탈지달린 이슬우위에 고향지 달리기

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

햇별같은이야기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햇별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 해주고, 맑고 깨끗하게 마음을 정화시키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햇별같은이야기는 우리나라 기독교 관련 사이트중에 10위 안에 드는 규모의 사이트로서 한 달에 10만명 이상 방문합니다.)

1. 웅달샘-김남준.이현주.한희철.임의진.이해인수녀님의 글 모두 3556편!
- 2.목상사이트100 -목상사이트100곳을 한군데 모아서 보여줍니다.
- 3.엄청난 자료실-없는 것이 없는 보물자료실 -자료 490개
- 4.읽을꺼리 -논문.신문기사등. 꼭 읽어야될 글 스크랩 -1108편
- 5.예수믿으세요.-전도지, 간증동영상, 연예인신앙간증등-372편
- 6.행복한기도실 -내영혼이주를찬양. 행복한기도실. 바울기도동 기도글 1100편
- 7.찬양 -찬양듣기, 찬양단흥, 찬양사이트등 360쪽 링크
- 8.파워포인트악보 890곡 모음
- 9.성경이여쓰기 -11677번째 쓰는 중
- 10.성경번역 -한글.일어.영어.중국어를 상호 번역해줍니다.

모두 50개의게시판에 2007.12.1현재 91073편의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open 되어 있습니다.**

## 사람을 살리는 열 마디 말

1. 어머니 -가장 존경스러운 말
2. 사랑 -가장 아름다운 말
3. 우정 -가장 따뜻한 말
4. 가정 -가장 평화스러운 말
5. 믿음 -가장 큰 안심이 되는 말
6.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방해물을 제거하고
7.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하고
8. 때맞춘 말 한마디가 고민을 없애주고
9. 격려의 말 한마디가 화해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10.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한 날이군요!



### 하나님께 꼭 잡혀 살면

1. 하루를 시작하는데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2. 부족한 시간도 풍성하게 쓸 줄 압니다.
3. 쓸데없는 경험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4.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습니다.
5. 늘 입을 무겁게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 침묵을 지킵니다.
6. 대화를 할 때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7. 과분하게 칭찬이나 감사 존경 호감을 구하지 않습니다.
8. 자신의 의견이나 충고가 무시될 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유리한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10. 자신에 대한 인기나 칭찬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11. 난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의지로 극복합니다.

### 좋은 아버지 되기

1.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
2. 좋은 말을 먼저 하라.
3. 좋은 일을 우선 행하라.

4. 좋은 일을 흉내내 보라.
5. 좋은 일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
6. 항상 검소하고 부지런 하라.
7. 항상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라.
8. 항상 밝은 마음과 밝은 얼굴을 가지라.
9. 항상 온 가족이 좋은 미래를 꿈꾸라.
10. 항상 믿음의 기쁨을 세우라.
11. 자녀 앞에서 부모님 흉을 보지 말라.
12.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
13. 자녀의 판단과 생각을 존중하라.
14. 자녀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
15. 자녀에게 공부만 강요하지 말라.
16. 자녀에게 함부로 매질하지 말라.
17. 자녀에게 너무 자주 훈계하지 말라.
18. 자녀가 원한다고 다 해주지 말라.
19. 자녀를 남과 비교해 말하지 말라.
20. 자녀 앞에서 의연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라.



## 오늘은 이런 용기를 내겠습니다

1. 참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2.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3. 내가 나에게 관대한 만큼 남에게도 관대한 용기를 내겠습니다.
4. 남을 위해 비밀을 지키며 침묵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5.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6.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7. 나쁜 일에서 단호히 떠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8. 남의 입장을 이해하며 오래 기다리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9. 꾸밈없이 순수해지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10. 노인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11.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고백을 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샬롬!



#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 〈도서구입안내〉

1. 햇별같은이야기1(618면.20000원) 지난 10년 동안 매일 한편씩 썼던 주옥같은 칼럼, 예화, 감동, 유머글 등 2천편의 글을 두 권에 짹짹 눌러 담았습니다.
2. 햇별같은이야기2(632면.20000원)
3. 숲속의아침(132면.9000원) 힘들고 어려웠던 30대 초반 신혼 시절에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 만들었던 첫 번째 손글씨 시집입니다.
4. 설레임(124면.9000원)-삭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가슴 두근거리는 기대감, 설레임, 기쁨, 행복 가득한 언어를 찾아 순박하고 맑고 밝게 기록한 서정시집입니다.
5. 어부동의아침(128면.9000원)-충청도 깊은 산골짜기 어부동 마을에 5년 동안 살면서 대청호 호숫가를 거닐며 쓴 초록빛 가득한 아름다운 詩모음입니다.
6. 내영혼이주를찬양365(396면.15000원)-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실제적인 기도를 매일 드리게 하는 책
7. 찬송가 파워포인트, OHP자료 4493곡이 담긴 CD -책을 구입하시면 무료로 드립니다.

## 〈우리가 하는 일〉

1. 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 기분 좋은 인터넷신문 매일 발행합니다.
2. 문서사역-정기간행물<들꽃편지> 주보자료, 전도자료발행
3. 도서출판- 모두 6권의 책을 출판하였고 약 20여권의 책이 출판 대기중입니다.
4. 목회자목요기도회-매주 목요일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5. 교회를위한중보기도-해마다 10교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합니다.
6. 나눔사역-개척교회, 선교단체, 노인, 어린이 등등 7곳에 물질을 조금씩 나눕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개인문서선교지입니다.

\*홈페이지 <http://cyw.pe.kr> 9191az@hanmail.net ☎ 041-866-5146 ■ 011-9696-2464

\*후원구좌 국민은행214-21-0389-661 농협138-02-048495 최용우

\*339-835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53-3 들꽃피는교회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제467호 \*발행.편집인: 최용우